

1. **새소망의 달:** 12월은 새소망의 달입니다.
2. **부지런금작정:** 2010년-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전체 성도가 각자의 형편과 감동에 따라 헌금을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분자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전원참석바랍니다.
3. **공동의회소집:** 오늘 낮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은 참석바랍니다.
4.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 오늘 오후 4시에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하시고 주변 청소바랍니다.  
 > 약300여명을 위해 기아자동차시온회(장기술)와 광산라이온스클럽(장승준)에서 협찬하였습니다. 국회의원,구청장,시의회의장,시의원 등 기관장 참석예정입니다.  
 > 여전도회연합회는 식사접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탄준비위원회:** 오후예배후 성탄준비를 위해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김기태,옥룡,이동만,진영만,곽세중,유영만,장현자,김건승,곽지혜,교역자
6. **성탄축하행사 및 새벽찬양:** 12월24일(목) 저녁7시에 있습니다.  
 > 성탄축하행사 예비연습이 오후5시에 있습니다. 발표팀은 빠짐없이 모입니다.  
 > 새벽찬양은 25일 새벽2시에 식사 후 구역별로 출발합니다.  
 > 모든 기관 구역은 참여 하셔서 기쁨의 성탄이 되도록 서로 협력합시다.
7. **성탄축하예배:** 25일(금) 오전11시에 성탄축하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기쁨의 성탄 되시고 감사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8.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9.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이병욱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옥 룡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10. **각반 성경공부:** 각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11. **금요기도회:** 25일 금요기도회는 여전도회연합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12.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카타쿰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 금주담당자: 문종승, 서향임, 전순이, 이준호, 김기태, 김문옥, 김평관
13. **전기관전도:** 각 기관은 교회주변전도와 결석자 회원을 심방하시기 바랍니다.
14. **결혼감사:** 임순분집사(김승재) 장녀 유진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다음주:** 주교졸업예배, 월례회로 모입니다.
16. **주일심방:** 이동만 김종철장로, 서금자 김숙자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7. **입원성도:** 조대병원(김달삼집사) 호남병원(정천호성도)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새한에수교 하남은광교회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공동의회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

담임 교역자  
손 중 기 목사  
(010-7283-8291)

12월은 새소망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곽세중 송희중 옥 룡  
 김종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김문옥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 옥룡,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 곽지혜 · 이은혜  
**【마리아성가대】**  
 ◆대장: 김태석, 지휘: 김유영  
 ◆반주: 전미영 · 계경숙

12/1-7	제122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12/6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6-9	심령부흥사경회(윤광중목사-안양신일교회)
12/13	새기관장 헌신예배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0	정기교육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성탄축하행사 공동의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4	성탄축하행사(24일), 성탄축하새벽찬양(25일)
12/25	성탄축하예배(25일)
12/27	주교졸업예배, 월례회
12/31	송구영신예배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27 (통27) .. 다같이  
\*성서교육 .. 제 51 문 .. 다 같이  
\*사죄확신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563 (통411) .. 다같이  
기 도 ..... 1부 송희종 장로  
2부 객세종 장로

성경봉독 .... 요 13:34-35(신171)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

기 도 ..... 다 같이  
찬 송 .. 220 (통278) .. 다같이  
봉 헌 ..... 다 같이  
감사기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같이  
\*축 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 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김성훈 전도사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김명관 장로  
성경봉독 / 요 1: 14(신141)  
찬 송 / 96 (통94) / 다같이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성탄의 축복”  
찬 송 / 95 (통82) / 다같이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오후 4시-6시  
외국인근로자(이주민)  
성탄축하행사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박의하 집사  
설교: 최지혁 부목사

찬 송 / 115(통115) / 다같이  
대표기도 / 조선경 권사  
성경봉독 / 눅 2:8-14(신89)  
특 송 / 제8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최지혁 부목사  
“성탄의 의미”

헌금기도 / 122(통122) / 진영만 장로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12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장기술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객세종 장로 ◆2부 송희종 장로 다음 주일 오후기도: 옥 룡 장로 다음삼일사회특송: 진영만장로(9구역) 다음 주삼일밤기도: 김복희 권사 금주 12/26(토)청소: 2남전도, 10여전도 이번주(20)식사당번: 10, 11, 12 구역 다음주(27)식사당번: 13, 14, 15 구역			
	2부	김종철 박의하 장승준					
안내	조윤기 서진욱 박동수 이건욱 김준영 박종관 김영산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하숙 김순신 김점덕 서정옥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전운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옥 김해경 김해진 양순옥 정영순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 장로	1	김요상	3	4000		김부현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교 회	3	6000	50	양혜숙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계경숙	8	11000	75	정영순	송희종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 장로	4	김태석				신은숙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교 회	3	15000	30	교 회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김영례	6	10000	20	전경순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 장로	7	조선경	3	6000		육영란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유길남	4	6000	292	박성희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김득자	8	9000		진영만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 장로	10	정영순	4	6000		이길례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유금순	5	11000		황생자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손문옥				백희숙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 장로	13	김천대	7	8000	200	한정자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김길순	3	4000	20	서향임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최옥기				이옥순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 장로	16	김숙자				진경애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조윤기				강미순	조윤기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옥 룡				임춘진	옥 룡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 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이준호	3	3000		김홍순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정종균	8	6000		한만희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 장로	22	문남철	7	5000	89	장기술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교 회	3	3000		오금례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이복남	4	8000		장미옥	김종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종 장로	25	이종순	6	10000		김현경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교 회	7	4000	50	전현정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이영희	2	3000		손우정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룡 장로	28	교 회	6	9000		교 회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교 회	5	7000		이병욱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오순애	5	11000	40	김경식	김성훈	952-3304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제11지구장 김종철 장로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기	954-3784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제12지구장 손종기 목사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34	은광아남	25	10000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제13지구장 최지혁 부목사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 회	6	6000	125	교역자	최지혁	385-1320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보다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힘쓰는 종교와 사상이 세상에 넘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에게 새롭고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천사의 노래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 1.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눅2:4-5).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것은 엄격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대 구분조차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탄은 명백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전 시대를 BC(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그 후를 AD(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로 구분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미5:2).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적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로서는 이 호적령이 그가 통치하는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시도였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2.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눅2:7).

왕 중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그 날 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구세주를 몸에 담은 마리아와 요셉 일행을 그저 누추한 여행객 하나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이 쉴 여관방 하나도 내 주지 않을 만큼 인심이 각박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각박한 마음을 비난할 수 있으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욱 낮아지셔서 말의 받통에 누이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섬김의 왕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휘황찬란한 성탄 장식과 값비싼 선물의 나눔, 그리고 각종 흥청망청한 모임을 지양하고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정신입니다.

### 3.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합니다(눅2:10-11).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저녁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통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가 그들이 천사를 통해 받은 놀라운 소식을 보고, 듣고, 증거 하였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 목동들처럼 증거 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비록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은 성령에 그들의 족적을 남기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는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 성탄축하의 밤

24일(목) 저녁 7시

#### [ 1부 예 배 ]

사회:곽세종장로 설교:손종기목사

찬 송 / 율하쉬림 찬양단  
기 도 / 김요상 장로  
성 경 / 마 1:21  
설 교 / 인류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

#### [ 2부 축하행사 ]

사회: 김건승,곽지혜

인 사 말 .....윤희평,강수빈  
노래율동 .....이원준 외  
노래율동 .....유년부  
찬양율동 .....초등부  
하모니카 .....홍스쿨친구들  
뮤지컬콩트 .....중고등부  
중 창 .....대학부  
혼성중창 .....청년회  
기관순서 .....남여전도회  
특별순서 .....가족찬양  
선물추첨 .....다같이

### 성탄감사예배

25일(금) 오전 11시

사회: 손종기 목사  
설교: 손종기 목사

예배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121장(통121)  
성시교독 / 제 119 문  
찬 송 / 109장(통109)  
기 도 / 이현일 장로  
성경봉독 / 눅2:8-14(신89)  
찬 양 / 할렐루야 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천사의 찬양”  
찬 송 / 108장(통113)  
봉 헌 / 다 같 이  
감사기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사회자  
축 도 / 손종기 목사

#### ★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 ★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하여라

#### ★ 123장 저 들밖에 한 밤중에 ★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 ★ 누가복음 2:14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한 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교회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만 하겠습니다.

### 1.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희생이 있습니다(빌2:7,8).

#### 1)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생명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 형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2)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먼저당신이 지닌 하늘 영광을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2:6,7)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포기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 2.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눅6:37).

#### 1) 지난 허물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 죄로 응징하고 징벌하셨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범죄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요3:17).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얻은 우리는 결코 인색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서는 안될 것입니다(마18:21-35).

#### 2)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범죄한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오신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한계로 절망하던 우리 인생들, 그리고 인간의 관례와 아집과 편견이 만들어놓은 모든 인습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다함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 3.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온전히 세워짐이 있습니다(갈6:1).

#### 1) 연약한 것을 서로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맞을 만한 의롭고 경건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약한 것을 살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 2) 함께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란 말입니다(요3:16).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웃 형제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맺는 말

성탄절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기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것처럼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펴서 이웃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 100가지 기도응답의 비결

### 81. 영적인 침체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의 물을 주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82. 기도를 비상 낙하산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낙하산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기도해 매달려야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83. 썩어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온전히 죽여야만 기도의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 84.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병이 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 85. 기도는 말을 많이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많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응답 받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 86.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 87.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자체를 좋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 88. 자신을 쏟아 붓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해 헌신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 89.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 90.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오.

순종의 생활이 뒷받침 되면 기도에는 저절로 힘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 향기로운 예물

### ● 십 일 조

교역자 : 서향임  
 장로 : 최상윤 김요상  
 안수집사 : 오광록 유명만 장기술 장승준 서진욱  
 권사 : 진윤희 조선경 이정자 양혜숙  
 집사 : 정봉진 이해경 전오례 강만철 이선화 김경식 김효식 현민희 손상원 이병욱  
 윤성래 양선숙 김성수 이현순 방찬혁 오남님 계경숙  
 ♥♥♥♥ :

###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서향임 전순이  
 장로 : 옥 룡  
 안수집사 :  
 권사 : 조선경 박경남 김숙자 이정자 양혜숙 방정원  
 집사 : 박은원 차길자 이정순 박종삼 김변순 한정자 김 호 오금례 김상규 김인숙  
 현민희 박종관 민찬임 김판심 이종순 김길순 문남철  
 ♥♥♥♥ : 이영희 이영선 옥승주 고광국 정해정 노병호 김태희 이영현 이영선 이성노  
 부흥회감사 : 최진웅 진경애 이현복 이영선 임순분 최상윤 곽은미

###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서향임  
 장로 : 김문옥  
 안수집사 : 유명만  
 권사 : 김복희 양혜숙  
 집사 : 기공서 양선숙 조정화 김영숙 손상원 김인숙 김 호 전오례 김상규 한정자  
 ♥♥♥♥ : 이소암 이소영

### ● 복지헌금

최지혁 서향임 장기술 최옥기

###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 성탄장식

김바다 김종철 양재숙 김천대 박점순 김숙경 조윤희 송희중 이정자 이재성 이재연  
 최순희 김영월 제2남



우리함께 힘을 모읍시다(II).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는 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1,100만 명에 이르러서 거의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인구 65억 명중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부각되어 21세기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유대인들의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유대인들 비중이 어떠한가는 노벨상 수상자 숫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거의 20%나 됩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두주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은 탈무드라는 지혜의 보고를 교훈 삼아 살아가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 탈무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머리가 돌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은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른 한 쪽 머리가 같은 고통을 느끼면 한 사람이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그는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합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형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형제는 이미 참 된 형제의 자리에서 떠난 자로 이미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작성한 교회부채헌금 작성에 다수의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유야 있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1,650원만 납부하시면 5년 후에는 10만원을 헌금한 것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생활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쉽게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8,250원이면 50만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람들 보는데 부끄럽게 적은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적은 액수는 참여하기를 기피하지만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5천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기쁘시게 보시고 우리 하남은 광고회를 통하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영혼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 군데로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다함께 힘을 모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온가족이 함께 1구좌를 정하든지 아니면 한 분 한 분 따로 따로 정하든지 구좌를 만들어 협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간직한 성도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이천구년 십이월 이십일  
 담임목사 손종기

★ 제3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2/17일	손종기	010-7283-8291	37	22일	박동수	010-5602-7559
2	18일	최지혁	010-3615-1638	38	23일	김용신	010-3008-6567
3	19일	김성훈	010-3827-7655	39	24일	이귀남	062) 952-8590
4	20일	문종승	010-7617-4070	40	25일	임춘진	011-604-8516
5	21일	서향임	018-629-2785	41	26일	김신자	010-7752-8667
6	22일	전순이	010-2999-7540	42	27일	서금자	016-9225-2602
7	23일	이준호	062) 952-8590	43	28일	모순자	010-6610-5880
8	24일	김기태	010-4633-8667	44	29일	최옥기	010-4323-7101
9	25일	김문옥	010-2565-2602	45	30일	유금례	010-9455-9579
10	26일	김명관	011-640-9608	46	31일	이봉순	016-9601-3784
11	27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28일	이동만	011-609-0774	48	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29일	곽세종	011-9607-9883	49	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30일	송희종	010-4370-7579	50	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31일	옥 룡	011-616-2360	51	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1/1일	김종철	010-7735-9917	52	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일	최상윤	010-5059-8475	53	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3일	김요상	011-602-0724	54	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5일	진영만	010-605-2902	56	1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1일	김동해	019-406-2586
22	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1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1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9일	김영근	011-638-1538	60	1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1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1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1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1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2일	조윤기	016-681-3784	63	1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13일	한경택	011-633-7200	64	1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14일	장기술	011-9604-0577	65	1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15일	최재현	010-6231-4589	66	20일	방봉순	011-605-3310
31	16일	박의하	010-2231-4684	67	2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17일	장승준	010-6609-2782	68	2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18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2/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19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20일	서진옥	010-5446-5357	71	15일	유양덕	010-5339-1831
36	21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12월25일 금요기도회(여전도회 연합회)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표 기도	.....	장	현	자
특송	.....	여	전	도
설교	.....	손	종	기
개인 기도	.....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전도	● 200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난순 권사
	● 2009년을 결산하고 2010년을 잘 준비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개척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서금자 권사
직분	● 복직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인재와 물질을 허락 하소서	
교육기관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이가영 집사
국가선교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성도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신은숙 집사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성도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합심기도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성도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